

**전주시 아파트 주거의 평면적 특성 분석

- 21-35평형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 -

Characteristics Analysis on the Unit Plans of Apartment Houses in Jeon-ju City

- Spacial tendency was focused on the unit size of 69.42-115.70㎡ -

최병숙* / Choi, Byung-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pacial characteristics from the 69.42-115.70㎡ unit plans of the apartment houses in Jeon-ju city, and to check up on the general spacial principles of Korean apartment unit plan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survey method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data of apartment unit plans and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apartment offices or real estate agency offices. The data of 157 unit plans and 19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general spacial principles of Korean apartment unit plans, the tendency of front 3-bay unit plan, the openness of living room, the Anbang with a bathroom and a dressroom, the utility room as a kitchen support space, and the addition of balconies, were showed in those of Jeon-ju city. 2) There was a new tendency, the front room arrangement of Anbang-living room-bedroom was changed into Anbang-living room-bathroom or kitchen, in them. 3) The characteristics of L-DK floor plans that the closeness of DK from exterior space and the interior openness and exterior privacy of L were showed in them. 4) The entrance was needed a intermediate space as a balcony or a former space, in them. These tendencies on unit plans of the apartment houses in Jeon-ju city were followed the general spacial principles of Korean apartment unit plans.

키워드 : 아파트 주거, 아파트 평면, 주거 평면, 전주시, 평면분석, 평면적 특성

Keywords : Apartment housing, Apartment unit plan, Housing plan, Jeonju city, Plan analysis, Spacial characteristics of unit pla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주거가 1980년대 이후 보편화됨에 따라 아파트 평면 분석에 관한 연구는 한국적 공동주택의 계획 방향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의 계획원리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공적공간(L/D/K)의 연계통합과 시각적 깊이 확보로 거실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성원리, 안방의 남향배치와 전용 화장실 설치 및 드레스룸에 따른 안방계획의 원리, 부엌보조공간으로의 다용도실 계획규범, 전면3칸의 평면구성 추이, 수납공간의 소극적 계획을 발코니 확대로 대응 등을 아파트의 기초적 계획원리로 정립하였다.¹⁾

그러나 이러한 계획방향 모색 및 계획원리의 정립을 위한 아파트 평면자료는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였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수요 공급 중심이 대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하지만 중소 지방도시에도 아파트 주거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아파트의 보편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기존의 아파트 계획의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평면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아파트 평면의 경향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지역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동주택

* 정희원, 전북대학교 아동·주거전공, 조교수

** 이 논문은 2004년도 전북대학교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최임주, 부산 경남지역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타난 주택 판매전략의 연도별 특성에 관한 연구: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일보 분양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3, 2002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계획 이론에서 지역성이 한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자료수집의 범위

전주시에는 1978년 'W'아파트를 시작으로 2004년 기준 202개의 아파트가 건축되었으나²⁾, 초기에 건축된 아파트 일부는 재건축에 돌입하여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전주시 전체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시³⁾ 2개 행정구(區) 단위에서 아파트 건축 빈도가 높은 상위 5개동(洞)을 중심으로 그 자료 수집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2) 자료수집 내용 및 분석방법

아파트 주거에 관한 일반적 자료는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준공 및 입주시기, 평형, 평면, 층수, 난방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2002년 6월에서 8월간 면접 조사하였다. 평면 자료는 준공 및 입주 당시의 것을 중심으로 하였고, 이는 전주시 아파트 주거의 평면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189개 아파트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였고, 평면에 관한 자료는 87개 아파트에서 가능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아파트 개요와 관련하여 189개 아파트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평면분석의 자료는 전주시에서 가장 건축 빈도가 높은 21-35평형의 157개 도면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4>

아파트 일반적 개요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도면자료는 문헌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른 기준 <표 1>을 토대로 질적분석을 하였고, 일부 기술통계분석도 병행 하였다.

(3) 평면분석 기준

본 연구의 아파트 평면분석 기준은 아파트 평면에 관한 기존 연구 및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내용 중 공통적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일부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주택 계획특성 및 원리⁴⁾를 참조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표 1>

공통적 사항은 크게 평면의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된 내용, LDK를 중심으로 한 공적공간에 관한 내용, 부부침실 및 화장실에 대한 사적공간의 내용, 다용도실과 발코니, 수납 등에 대한 보조공간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평면 전체의 내용은 전면구조(2bay, 3bay), 남향배치를 다루었으며, 공적공간의 내용으로는 L,D,K의 공간결합과 분리 유형, L과 DK공간

과의 시선처리, 거실의 중심성, 현관과 LDK 배치관계를 다루었다. 사적공간으로는 안방인 부부침실을 중심으로 공간구성, 화장실의 수에 대해 다루었고, 보조공간으로는 세탁 및 부엌보조의 다용도실, 발코니 확대경향, 수납공간 요구를 다루었다.

<표 1> 아파트 주거의 평면 및 공간특성에 관한 문헌 분석

연구자(년도)	연구 주제	평면 및 공간 특성분석 내용
이숙영, 이연숙 (2005)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의 주호공간 특성-공간관계	-개인공간과 공동공간과의 배치 -공동공간(L,D,K) 배치: L-DK 우세, 구조적으로 어긋나게 시선차단 -진입공간(현관)과 작업공간(부엌) 배치: 우회 진입 -진입공간과 거실공간 배치: 현관 진입후 다른 공간 지난 후 거실 측면배치
최재필, 조형규, 박인수, 박영섭 (2004)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3LDK형/4LDK형 평면분석	-소형아파트 경우도 침실개수 3개, 욕실수 2개로 증가 -욕실수 2개 정착/ 전면 배이수와 발코니수 증가 -3LDK는 거실중심에서 부엌/식당 중심 구성으로 변화, 4LDK형은 거실 중심의 구성 계속 유지
김선아, 방희조 (2004)	FCI를 통한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분석-공간별로 분석	-거실은 부엌과 연계 혹은 분리의 가변적 구성 -주방은 조망창과 쌓아채 저장창고 요구 -침실은 프라이버시, 불박이장보다 수납창고 요구 -욕실은 다양한 활동 수용과 짜투리 수납공간 요구 -현관/서비스공간은 시선 차단블리 -보조주방과 세탁실 공간 분리
방정훈, 오진욱 (2004)	전면 2실형과 3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만족도 비교 - 평면 특성	-전면폭/깊이: 전면 3실형이 2실형의 전면 폭이 깊이보다 큰 직사각형 -면적: 전면 3실형의 거실, 부엌, 침실 면적이 전면 2실형보다 좁고, 침실2-3, 연계공간은 더 넓음 -현관배치: 전면2실형은 현관에서 거실이 개방, 3실형은 거실이 보이지 않는 형식 -발코니: 전면2실형은 발코니 영역간 구분이 없고, 3실형은 발코니 영역을 벽과 출입문으로 구분 -LDK배치: 전면2실형, 3실형 모두 DK, 하나의 공간, 거실독립 -욕실배치: 2개 욕실이 전면2실형 인접배치, 3실형 분리배치
최은희(2003)	1999년 이후 분양 2001년 입주하는 공동주택 단위평면유형과 설계특성 파악 (서울/수도권)	-단위평면패턴을 평형별 유형화: 현관, 거실, 부엌, 식당, 침실, 욕실 배치 및 연계관계 중심 -평면구성 특성: 가변형 벽체사용/ 식당, 부엌, 주침실의 욕실을 전면 남향배치/ 전면칸과 발코니수 증가/ 주출입구-후면발코니-주방 연결의 부출입구 진입/ 제2거실, 가족실 등장
신중진, 서기영, 허지연, 김홍룡, 김창수(2002)	최근 초고층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실구성 유형: LDK, L-DK, L-D-K로 구분, 방의 개수, 화장실의 개수 -부부공간 실구성 방식: 복도, 전실, 욕실, 드레스룸 -별도의 가족단위 공간 제공
최임주(2002)	부산 경남지역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타난 주택판매 전략의 연도별 특성에 관한 연구	-전면3bay, 4bay구조로 침실 남향집중배치 -가변형 벽체사용의 평면 다양성 확보 -주부동선고려 부엌설계 -욕실2개, 부부전용화장실, 드레스룸 -확장형 발코니의 사용 전용면적 극대화 -발코니 대형 수납계획
장창우, 진 정 (2001)	실테조사를 이용한 아파트 단위평면의 공간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거실과 부엌: L-DK형, 부엌과 거실이 L자로 찍어 연결, 거실과 시선적 거리감 형성하면서 개방적 공간구성, 식탁공간 확보, 부엌 옆 다용도실(세탁기 설치) -현관문 열면 거실 활동 외부 노출/발코니 진입방식으로 외부와 내부 연결로 거실활동 외부 노출
공동주택 연구회 (1999)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공적공간: 거실-식사실-부엌의 통합연계 -거실분절: 현관, 식사실, 부엌 등과 분절 -안방-거실 남향배치/ 안방 전용화장실/ 전면 3칸 -다용도실, 수납공간 및 발코니 공간
정성현(1998)	중소규모 아파트 평면형에 관한 연구	-LDK의 절대적인 중심 -남향 거실-안방, 방-거실-방/ 거실, 안방 큰 면적 -계단형으로 변화함에 따른 서비스공간 증대 -부부용 욕실 출현
손광재, 이종우 (1995)	대구지역 아파트 평면유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3bay 형식 30평형대 보편화 -평면구성원L-DK 형식을 기본 -안방은 내실과 침실의 분리 -거실 독립성확보/ 식당과 부엌의 분리 -화장실의 유니트화 및 수의 증가 -발코니 실내화
본 연구 분석기준	• 평면전체 • 공적공간 • 사적공간 • 보조공간	-전면3칸 경향, 안방-거실-(방) 배치 -LDK공간 배치, 진입(현관)-거실배치와 프라이버시 -화장실수, 부부공간 실구성 -다용도실, 발코니수

2)한국부동산닷컴자료에 제시된 아파트 명칭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임.(2004. 4. 23 기준)

3)전주시는 2개 행정구, 20개 행정동으로 구성됨.

4)전개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통적 경향으로 <표 1>에서와 같이 분석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전면3칸 구성과 관련하여 안방-거실-방의 배치, 현관-L과 현관-DK의 공간감을 추가하여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조사 결과 및 해석

2.1. 아파트의 일반적 개요

(1) 준공 및 입주시기

전주시 아파트는 주로 90년대 들어 준공 입주된 아파트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 준공 입주된 아파트가 34.0%, 1996년부터 2000년 준공 입주된 아파트가 33.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면 분석의 아파트 역시도 전체적인 준공 입주 경향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1991년-1995년, 1996-2000년이 준공 입주아파트가 각각 26.4%, 46.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리고 특히 전체 아파트 중에서는 1998년과 1995년에 준공 입주한 아파트가 19개(10.1%), 20개(10.9%)로 가장 많았고, 평면 입수 아파트 중에서는 1998년과 1999년 이 각각 15개(17.2%)와 11개(12.6%)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외의 아파트 공급정책이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것과 비교하면, 전주시의 본격적인 아파트 시기는 수도권과 약 10년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공 및 입주시기	1986년 이전	1986-1990년	1991-1995년	1996-2000년	2001년 이후	계
전체 아파트	21(11.2)	24(12.8)	64(34.0)	62(33.0)	17(9.0)	189(100.0)
평면 입수 아파트	4(4.6)	10(11.5)	23(26.4)	40(46.0)	10(11.5)	87(100.0)

(2) 분양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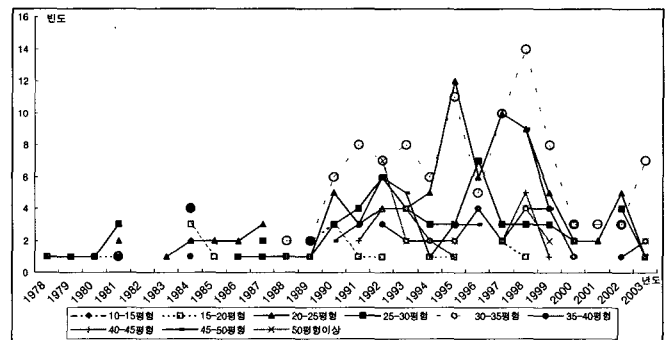
전주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최소 7평형부터 최대 68평형까지 분양되었으나, 31-25평형(26.8%)과 21-25평형(22.3%)이 전체 아파트의 1/2이 되는 4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을 수집한 아파트 역시 최소 규모 13평에서 최대 65평의 아파트까지 분포하였으며, 31-35평(28.2%)과 21-25평형(27.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아파트의 규모는 21평이상 35평이하의 중소형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아파트 분양면적을 준공 입주시기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 <그림 1>의 그래프와 같이 30-35평형과 20-25평형은 1988년 이후 전체 아파트의 수에서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40평형 이상의 규모는 1990년 이후 건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아파트 분양면적

분양면적	전체 아파트		평면 입수 아파트	
	빈도	%	빈도	%
15평 이하	8	2.0	3	1.3
16-20평	27	7.7	12	5.0
21-25평	91	22.3	65	27.3
26-30평	59	14.6	25	10.5
31-35평	108	26.8	67	28.2
36-40평	31	7.7	15	6.3
41-45평	24	6.0	13	5.5
46-50평	37	9.2	25	10.5
51평이상	19	4.7	13	5.5
계	404*	100.0	238*	100.0

* 동일 아파트 중에서도 평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그림 1> 전체 아파트 준공 입주시기별 분양면적 분포 변화

(3) 아파트 주거동 층수

전주시의 아파트 주거동은 주로 고층(34.0%) 혹은 초고층(33.0%)이 67.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면을 수집한 아파트의 경우도 고층(52.9%) 혹은 초고층아파트(34.5%)의 비율이 87.4%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준공 및 입주시기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계
전체 아파트	37(19.6)	12(12.8)	64(34.0)	62(33.0)	189(100.0)
평면 입수 아파트	8(9.2)	3(3.4)	46(52.9)	30(34.5)	87(100.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초고층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1992년임을 볼 때⁵⁾, 그리고 전주시 아파트의 76%가 90년대 이후 건축되었으므로, 고층과 초고층 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 주거동수 및 세대수

전주시 아파트의 주거동수는 평균 약 5개동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5동 이하로 아파트 단지가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는 평균 약 436세대인 것으로 파악되

5) 우리나라에서 1984년 들어서면서 고층아파트의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서 전체 공급물량의 31.66%가 되며, 1985년은 50.91%로 확대되며, 이후 1992년까지 고층아파트가 주종을 이룬다. 초고층아파트는 1992년 공급물량의 10.24%에서 1993년 47.02%, 1994년 60.56%, 1995년 49.25%, 1996년 85.03%로 급격히 증대되었다.(공동주택연구회,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pp.255-256)

있고, 100-500세대로 구성된 단지가 전체의 6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이 입수된 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아파트에서 나타난 경향과 동일하게 5동 이하, 100-5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거동수와 세대수는 전주시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임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표 5> 세대수 및 동수

주거동수	전체 아파트 빈도(%)	평면입수아파트 빈도(%)	세대수	전체 아파트 빈도(%)	평면입수아파트 빈도(%)
5동이하	120(63.5)	43(49.4)	100세대이하	16(8.4)	-
6-10동	56(29.6)	34(39.1)	100-500세대이하	118(62.1)	49(56.3)
11-15동	7(3.7)	4(4.6)	500-1000세대이하	43(22.6)	28(32.2)
16-20동	5(2.6)	5(5.7)	1000-1500세대이하	10(5.3)	7(8.0)
21동이상	1(.5)	1(1.1)	1500세대이상	3(1.6)	3(3.4)
계	189(100.0)	87(100.0)	계	190(100.0)	87(100.0)
평균(SD)	5.09(4.09)	6.53(4.82)	평균(SD)	436.26(347.39)	572.94(383.59)

(5) 편복도형과 계단실형

전주시 아파트의 주요 접근방식을 파악한 결과 계단실형이 85.1%였고, 편복도식은 14.9%로 계단실형이 더 많은 아파트 유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면 입수 아파트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계단실형 85.7%, 편복도식 14.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파트가 편복도식으로 계획한 경우보다는 계단실형으로 계획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6).

<표 6> 단위주호 접근방식 단위:빈도(%)

접근방식	계단실형	편복도형	계
전체 아파트	148(85.1)	28(14.9)	174(100.0)
평면 입수 아파트	60(85.7)	10(14.3)	70(100.0)

(6) 난방 및 연료

전주시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절대적으로 개별난방방식(95.8%)이 채택되었고, 도시가스(96.8%) 연료가 주로 사용되었다7). 이러한 결과는 전주시의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에 비하여 늦어서 최근 아파트 건축에 채택하고 있는 난방방식 및 연료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난방방식 및 연료 단위:빈도(%)

구분	난방방식	연료		계
		유류	도시가스	
난방방식	중앙 난방	4(2.1)	4(2.1)	8(4.2)
	개별 난방	2(1.1)	179(94.7)	181(95.8)
계		6(3.2)	183(96.8)	189(100.0)

22. 아파트의 평면적 특성

(1) 평면의 전면 공간배치

6)전개서, pp387-396.

7)평면입수 아파트의 경우도 그 경향이 개별난방+도시가스 84(96.6%), 중앙난방+유류 1(1.1%), 중앙난방+도시가스 2(2.3%)로 동일하므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아파트 평면의 전면배치 형식을 파악한 결과<표 8> <그림 2> 절대적으로 2베이(80.9%), 방-거실(79.0%) 배치형식의 평면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21-25평형에서 2베이는 55/65사례(84.6%), 방-거실은 54/65사례(83.1%)였고, 26-30평형에서 2베이는 24/25사례(96.0%), 방-거실은 22/25사례(88.0%), 31-15평형에서 2베이는 49/67사례(73.1%), 방-거실은 48/67사례(71.6%)로 규모와 관계없이 2베이와 방-거실 배치형식의 비율이 높았다.

<표 8> 평형별 평면형식 단위:빈도(%)

구분	구분	21-25평형	26-30평형	31-35평형	계
		전면배치 형식	2 베이	55(85.0)	23(14.6)
방배치 형식	3 베이	10(6.4)	2(1.3)	18(11.5)	30(19.1)
	방-거실	54(83.4)	22(14.0)	48(30.6)	124(79.0)
	방-거실-방	6(3.8)	2(1.3)	17(25.4)	25(15.9)
	기 타	5(3.2)	1(0.6)	2(1.3)	8(5.1)
계		65(41.4)	25(15.9)	67(42.7)	157(100.0)

<표 9> 준공 및 입주시기별 평면형식 단위:빈도(%)

구분	구분	1986년 이전	1986-1990년	1991-1995년	1996-2000년	2001년 이후	계
		전면배치 형식	2 베이	4(2.7)	14(9.3)	37(24.7)	55(36.7)
실배치 형식	3 베이	4(2.7)	4(2.7)	-	16(10.7)	6(4.0)	30(20.0)
	방-거실	4(2.7)	12(8.0)	37(24.7)	55(36.7)	10(6.7)	118(78.7)
	방-거실-방	3(2.0)	4(2.7)	-	13(8.7)	5(3.3)	25(16.7)
	기 타	1(0.7)	2(1.3)	-	3(2.0)	1(0.7)	7(4.7)
계		8(5.3)	18(12.0)	37(24.7)	71(47.3)	16(10.7)	150(100.0)

한편 3베이 배치 중에서 기타 형식도 나타났으며, 이는 전면공간이 방-거실-방의 평면구조가 아닌 방-거실-욕실(7사례) 혹은 방-거실-부엌(1사례)인 경우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평면배치에서 고정적으로 전면공간을 방-거실-방의 중심에서 다양한 실배치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부엌을 전면배치한 사례는 일부 타지방 도시에서도 나타난 평면이었고, 이 곳 역시 소수 사례였다8).

<표 10> 준공 및 입주시기에 따른 평형별 전면배치 형식 단위:빈도(%)

구분	구분	21-25평형	26-30평형	31-35평형	계
		1986년 이전	2 베이	2(25.0)	1(12.5)
1986-1990년	3 베이	4(50.0)	-	-	4(50.0)
	2 베이	2(11.1)	5(27.8)	7(38.9)	14(77.8)
1981-1995년	3 베이	1(5.6)	-	3(16.7)	4(22.2)
	2 베이	14(37.8)	5(13.5)	18(48.62)	37(100.0)
1996-2000년	3 베이	-	-	-	-
	2 베이	29(40.8)	8(11.3)	18(25.4)	55(77.5)
2001년 이후	3 베이	3(4.2)	2(2.8)	11(15.5)	16(22.5)
	2 베이	5(31.3)	2(12.5)	3(18.82)	10(62.5)
계		2(12.5)	-	4(25.0)	6(37.5)

시기별로 파악하면<표 9> 2베이, 방-거실의 형식의 평면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1996-2000년에 준공 입주된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시기도 2베이(36.7%), 방-거실(36.7%)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01년 이후의 평면에서는 3베이 평면이 다른 시기에 비해 그 빈도가 약간 높았고, 방-거실-방의 평면 역시도 그 빈도가 다소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을 시기에 따라 각각 평형별

8)전개서, p.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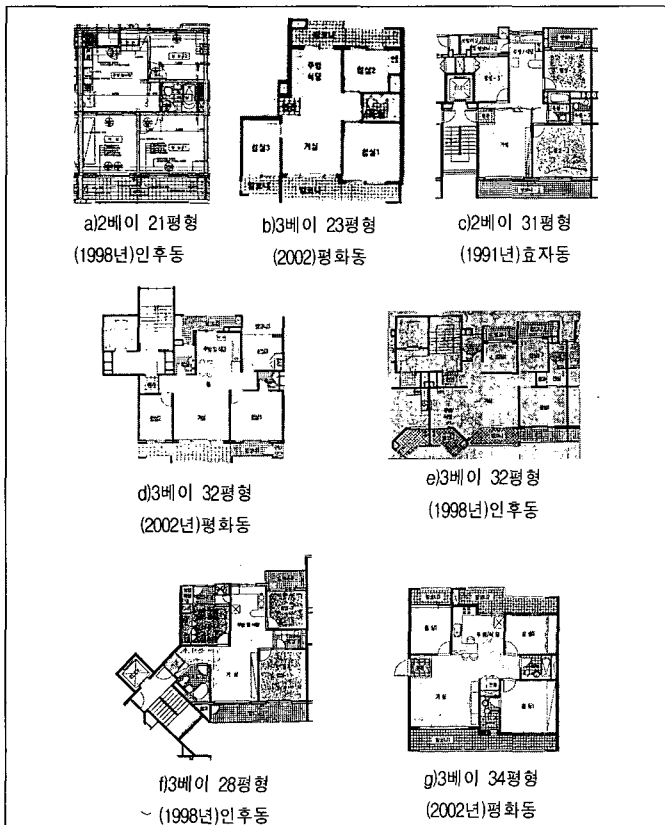
전면 배치형식을 분석한 결과, 21-25평형 3베이(10사례) 중 5사례, 26-30평형 3베이 2사례 모두, 31-35평형 3베이(18사례)중 15사례가 1996년 이후 준공 및 입주된 아파트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거실-방의 3칸 공간이 전면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3베이의 평면구조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등장하여 본격화하였다는 기존 연구결과⁹⁾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리고 2칸에서 3칸으로의 경향이 커진 것은 방(안방)-거실의 중요 공간이외 개인침실공간 주로 자녀침실로 사용되는 공간역시도 안방 못지않게 중요한 공간이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의 예와 같이 전면 3칸 평면구조는 2칸 구조에 비하여 남향 공간의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단부와 엘리베이터 공간이 북측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평면의 전체 형상도 사각형에서 요철이 있는 L-Γ자 혹은 커자로 바뀌었다.

(3) 공적공간

① LDK의 공간 배치

아파트 주거에서 가족생활은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부엌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공적공간으로 보고 그 결합의 배치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 12>와 같다. 전체 150개의 도면중 식당·부엌이 하나의 공간으로 결합되고 거실공간이 분리된 L-DK형이 88.7%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세 공간이 하나로 결합된 LDK형(8.0%)과 세 공간이 각각으로 분절된 L-D-K형(2.7%) 그리고 부엌이 분리되고 식당과 거실이 결합된 LD-K형(0.7%)이 있었다.



<그림2> 평형별 전면 칸배치/실배치 형식

9)전개서, p.442.

<표 11> 준공 및 입주시기별 LDK 공간배치와 분리 단위:빈도(%)

구분	21-25평형	26-30평형	31-35평형	계	
LDK 배치	LDK	8(5.1)	2(1.3)	2(1.3)	12(7.6)
	L-DK	57(36.3)	22(14.0)	61(38.9)	140(89.2)
	LD-K	-	1(0.6)	3(1.9)	4(2.5)
	L-D-K	-	-	1(0.6)	1(0.6)
L-DK 연결	통로로 분리	6(3.8)	2(1.3)	1(0.6)	9(5.7)
	벽체 격임으로	4(2.5)	-	1(0.6)	5(3.2)
	미닫이문으로 조절	9(5.7)	1(0.6)	6(3.8)	16(10.2)
	통로+벽체 격임으로	40(25.5)	19(12.1)	57(36.3)	116(73.9)
	분리되지 않음	8(3.8)	3(1.9)	2(1.3)	11(7.0)
계	65(41.4)	25(15.9)	67(42.7)	157(100.0)	

<표 12> 준공 및 입주시기별 평면형식 단위:빈도(%)

구분	1986년 이전	1986-1990년	1991-1995년	1996-2000년	2001년 이후	계	
LDK 배치	LDK	2(1.3)	-	4(2.7)	5(3.3)	1(0.7)	12(8.0)
	L-DK	6(4.0)	17(11.3)	31(21.3)	63(42.0)	15(10.0)	133(88.7)
	LD-K	-	-	1	3	-	4(2.7)
	L-D-K	-	1	-	-	-	1(0.7)
L-DK 연결	통로로 분리	3(2.0)	-	1(0.7)	2(1.3)	3(2.0)	9(6.0)
	벽체 격임으로	1(0.7)	1(0.7)	1(0.7)	1(0.7)	1(0.7)	5(3.3)
	미닫이문으로 조절	-	7(4.7)	3(4.0)	6(4.0)	-	16(10.7)
	통로+벽체 격임으로	3(2.0)	10(4.7)	29(19.3)	56(37.3)	11(7.3)	109(71.7)
	분리되지 않음	1(0.7)	3(2.0)	-	6(4.0)	1(0.7)	11(7.3)
계	8(5.3)	18(12.0)	37(24.7)	71(47.3)	16(10.7)	150(100.0)	

LDK공간배치를 준공 및 입주시기 및 평형별로 따라 파악하면 그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L-DK형이 어느 시기에나 그리고 모든 평형에서 보편적 경향을 보였다. 즉, 식사와 취사공간이 결합된 DK형은 기존 연구¹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주시 아파트 평면에서도 매우 일반적인 공간배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평형에 비하여 21-25평의 소형에서 LDK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사례가 많았다. 이는 <그림 2-a>와 같은 평면 사례에서 거실대신 침실로 계획됨에 따라 보여진 평면이었다.

② L과 DK 공간 분리

L과 DK 공간분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한 결과, <그림 2-c,d,f,g>와 같이 통로로 분리되면서도 벽체가 약간 격여 분리되는 형태가 전체 평면의 71.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L과 DK공간이 <그림 2-a>와 같이 미닫이문으로 완전히 분리하거나, 문을 열어 서로 연결 개방하는 방식이 10.7%였다. 단순히 <그림 2-b>와 같이 통로로만 분리하거나(6.0%), 벽체를 서로 어긋나게 하여 분리하는 방식(3.3%)도 있었고, L과 DK공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이 7.3%였다.<그림 2-e> 이러한 결과는 L과 DK공간 연결에서 거실과 부엌·식당공

10)이숙영·이연숙,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의 주요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2), 2005

간을 분리하되 완전히 독립적으로 공간을 구획하기 보다는 시선과 동선을 차단하거나 분리한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거실과 부엌·식당공간은 내부적으로 각각의 시각적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L-DK공간 분리방식 역시 준공 및 입주시기, 평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③ 출입과 거실공간의 개방성

현관으로부터 진입하면서 거실공간의 개방 및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지를 파악한 결과<표 13>, 현관 진입시 바로 거실이 개방되는 경우가 51%였고, 현관 진입시 거실이 바로 보이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경우는 49.0%였다. 이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복도를 거쳐 바로 현관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9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게 되는 경우이다. 즉, 거실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확보되지 못한 평면이 51%였다.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49%의 평면은 현관에서 거실로의 시선을 수납장, 칸막이로 차단하여 조절한 경우가 33.1%였고, 현관 가까이 침실 혹은 욕실을 배치함으로써 이들 공간을 거쳐 진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경우가 15.9%였다.

<표 13> 평형별 현관-LDK 공간연결 단위:빈도(%)

구 분		21-25평형	26-30평형	31-35평형	계
현관-거실 연결	현관에 들어서 정면 거실이 보임	35(22.3)	11(7.0)	43(21.7)	80(51.0)
	현관에서 거실로 시선이 꺾여짐	13(8.3)	10(6.4)	29(18.5)	52(33.1)
	현관에서 다른 공간을 거쳐 거실로 감	17(10.8)	4(2.5)	4(2.5)	25(15.9)
현관-DK 연결	현관에 들어서 DK 바로 보임	7(4.5)	1(0.6)	-	8(5.1)
	현관에서 DK로 시선이 꺾여짐	54(34.4)	21(13.4)	59(37.6)	134(85.4)
	현관에서 다른 공간을 거쳐 DK로 감	4(2.5)	3(1.9)	8(5.1)	15(9.5)
현관 진입	외부계단/복도에서 직접 진입	65(41.4)	25(15.9)	63(40.1)	151(97.5)
	외부계단/복도에서 전실/발코니 거쳐 진입	-	-	4(2.5)	4(2.5)
	계	65(41.4)	25(15.9)	67(42.7)	157(100.0)

<표 14> 준공 및 입주시기별 현관-LDK 공간연결 단위:빈도(%)

구 분		1986년 이전	1986년-1990년	1991년-1995년	1996년-2000년	2001년 이후	계
현관-거실 연결	현관에 들어서 정면 거실이 보임	4(2.7)	6(4.0)	24(16.0)	34(22.7)	8(5.3)	76(50.7)
	현관에서 거실로 시선이 꺾여짐	3(2.0)	8(5.3)	9(6.0)	25(16.7)	6(4.0)	51(34.0)
	현관에서 다른 공간을 거쳐 거실로 감	1(0.7)	4(2.7)	4(2.7)	12(8.0)	2(1.3)	23(15.3)
현관-DK 연결	현관에 들어서 DK 바로 보임	2(1.3)	-	2(1.3)	3(2.0)	1(0.7)	8(5.3)
	현관에서 DK로 시선이 꺾여짐	5(3.3)	15(10.0)	35(23.3)	57(38.0)	15(10.0)	127(84.7)
	현관에서 다른 공간을 거쳐 DK로 감	1(0.7)	3(2.0)	-	11(7.4)	-	15(10.0)
현관 진입	외부계단/복도에서 직접 진입	8(5.3)	18(12.0)	37(24.7)	67(44.7)	18(10.7)	144(97.3)
	외부계단/복도에서 전실/발코니 거쳐 진입	-	-	-	4(2.7)	-	4(2.7)
	계	8(5.3)	18(12.0)	37(24.7)	71(47.3)	18(10.7)	150(100.0)

평형별로 보면 거실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경우는 21-25평형과 31-35평형에서 나타났다. 21-25평형은 편복도인 경우로 <그림 2-a>와 같이 현관이 후면, 거실이 전면에 위치함으로써 거실의 노출이 조절된 형태였다. 31-35평형은 <그림 2-d>와 같이 다른 공간으로 인해 시선이 조절된 형태였다.

시기적으로 보면 1996년 이후 평면에서 거실이 개방된 형태보다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평면이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14> 하지만 <그림 2>와 <표 11, 12>로 볼 때 거실공간은 내부적으로 시각적 프라이버시가 조절된 개방된 공간이었다.

따라서 거실공간은 진입 시 외부적 시선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외부로부터 진입하였을 때 단위평면에서 가장 먼저 개방감을 주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그림 2> 즉, 전통주거공간에서의 마루공간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감이 아파트의 거실공간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단위평면상으로 볼 때 거실 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성 원리가 적용된 것이었다.

④ 출입과 DK의 독립성

거실공간이 진입시 개방된 비율이 높은 것(50.7%)과는 달리 DK공간은 시선조절(85.4%) 및 공간(9.5%)을 통해 독립성이 확보된 프라이버시를 유지(94.9%)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3, 14> 평형별로는 진입시 DK공간이 바로 보여 시선이 개방된 유형 중에서 소형 21-25평형의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편복도식의 아파트에서 후면 진입을 하는 경우 주방/식당이 현관에 면하여 바로 개방된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31-35평형에서는 다른 공간을 거쳐 DK로 진입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았다.

시기적으로 볼 때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DK공간의 프라이버시 유지라는 전반적인 경향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일부 1996년-2000년 아파트 평면에서 다른 공간을 거쳐 DK공간으로 진입하는 연결방식의 사례가 많았다. 이는 앞서 31-35평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이였으며, 현관 출입공간→부엌·식당으로의 이동 동선이 길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엌과 식당공간을 외부에 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공격공간 중에서는 거실 보다 DK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요구가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⑤ 출입공간의 진입

아파트 주거공간에서 외부와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출입공간인 현관은 대부분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바로 단위세대 현관으로 접근 실내로 진입하는 방식(97.5%)이 대다수의 평면에서 볼 수 있는 형태였다. 이에 현관문을 열면 바로 실내공간 주로 거실이 노출되는 경우가 분석대상 평면의 약 1/2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표 13, 14>에서 보면 31-35평형이고, 199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평면에서는 엘리베이터, 계단공간과 현관 사이 완충공간인 전실 혹은 발코니를 계획한 예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현관을 통해 외부 노출을 조절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선행연구(11)에서도 30평형대 이상 아

11)1999년 이후 분양되어 2001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평면 128개를 분석

파트에서 현관 출입방식을 통해 영역성과 프라이버시 욕구가 있음을 제시한 것과 같은 경향이였다.

(4) 사적공간의 안방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 대표적인 안방을 사적공간¹²⁾으로 살펴본 결과<표 15, 16>, 안방공간은 하나의 방으로만 계획된 경우(49.3%), 방+전용욕실로 계획된 경우(45.3%), 방+전용욕실+드레스룸으로 계획된 경우(5.4%) 세 가지의 공간구성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구성 중 전용욕실과 드레스룸이 부가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함으로써 안방이 부부침실로서의 사적공간 기능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공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5> 평형별 안방공간구성 단위:빈도(%)

구분	21-25평형	26-30평형	31-35평형	계
안방	59(37.6)	14(8.9)	5(3.2)	78(49.7)
공간구성				
안방만	6(3.8)	9(5.7)	56(35.7)	71(45.2)
안방+전용욕실+드레스룸	-	2(1.3)	6(3.8)*	8(5.1)
계	65(41.4)	25(15.9)	67(42.7)	157(100.0)

* 안방+전용욕실+드레스룸+창고(1사례) 포함

<표 16> 준공 및 입주시기별 안방공간구성 단위:빈도(%)

구분	1996년 이전	1996년-1999년	1999년-2000년	2000년 이후	계	
안방	7(4.7)	10(6.0)	19(12.7)	32(21.3)	6(4.0)	74(49.3)
공간구성						
안방+전용욕실	1(0.7)	8(5.3)	18(12.0)	37(24.7)	4(2.7)	68(45.3)
안방+전용욕실+드레스룸	-	-	-	2(1.4)*	6(4.0)	8(5.4)
계	8(5.3)	18(12.0)	37(24.7)	71(47.3)	16(10.7)	150(100.0)

* 안방+전용욕실+드레스룸+창고(1사례) 포함

한편 안방공간의 구성을 평형별로 살펴보면, 21-25평형의 경우는 안방만 존재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고, 31-35평형의 경우는 안방+전용욕실 비율이 높았다. 시기별로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1996년 이전에는 안방만 계획된 경우의 비율이 높고, 1996년 이후는 안방+전용욕실 혹은 안방+전용욕실+드레스룸의 비율이 높았다. 즉, 이러한 결과는 31평형이상 1996년 이후 아파트에서 안방의 부부침실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1-30평형의 규모에서도 그 비율은 낮지만 안방+전용욕실, 안방+전용욕실+드레스룸의 공간구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규모에 따라 안방의 기능이 변화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안방의 공간구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볼 때, 안방공간은 규모의 영향보다 기능적 차원에서 그 요구가 컸다고 하겠다. 즉, 전용욕실의 추가에서 더 나아가 드레스룸까지 부가함으로써

한 연구에서 30평형대 이상에서 마당형 전실전입형의 출입방식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는 현관문 하나로 주거내 외부가 결정되던 과거의 출입구 배치와는 달리 주거공간에서의 영역성과 프라이버시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였다.(최은희,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 2003)

12)안방공간을 우리나라 주거에서는 가족실의 개념으로 보아 사적공간으로 다루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안방에 전용욕실, 드레스룸, 파우더룸등이 부가되면서 부부침실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신준진 외, 2002), 본 연구에서 안방을 사적공간으로 분석하였다.

써 부부침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안방공간의 구성은 다른 침실공간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고, 앞서 <표 8>에서 안방이 거실과 함께 전면 배치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안방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¹³⁾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5) 보조공간

① 부엌보조공간으로서의 다용도실

부엌의 보조공간으로써 다용도실의 설치여부를 파악한 결과, 분석 아파트 평면의 89.8%에서 다용도실의 공간이 계획되어 있었고, 10.2%의 평면에서는 계획되지 않았다. 다용도실의 계획은 별도로 계획된 경우(8.9%), 부엌에 면한 후면 발코니를 다용도실로 계획한 경우(78.3%), 후면 발코니 이외의 부조 부엌공간을 별도로 계획한 경우(2.5%)였다. 이를 평형별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표 17, 18> 규모와 관계없이 부엌에 면한 후면발코니를 다용도실로 계획한 경우가 보편적 경향이였다.

<표 17> 평형별 부엌보조공간의 다용도실 단위:빈도(%)

구분	21-25평형	26-30평형	31-35평형	계	비고
부엌	8(5.1)	3(1.9)	3(1.9)	14(8.9)	편복도식 8(5.1)
보조공간	43(27.4)	22(14.0)	58(36.9)	123(78.3)	편복도식 1(0.6)
다용도실					
후면발코니+보조부엌 = 다용도실	-	-	4(2.5)	4(2.5)	-
다용도실 없음	14(8.9)	-	2(1.3)	16(10.2)	편복도식 12(7.6)
계	65(41.4)	25(15.9)	67(42.7)	157(100.0)	-

<표 18> 준공 및 입주시기별 안방공간구성 단위:빈도(%)

구분	1996년 이전	1996년-1999년	1999년-2000년	2000년 이후	계	
부엌	2(1.3)	2(1.3)	5(3.3)	4(2.7)	-	13(8.7)
보조공간	5(3.3)	14(9.3)	28(18.7)	56(37.3)	14(9.3)	117(78.0)
다용도실						
후면발코니+보조부엌 = 다용도실	-	-	-	4(2.7)	-	4(2.7)
다용도실 없음	1(0.7)	2(1.3)	4(2.7)	7(4.7)	2(1.3)	16(10.7)
계	8(5.3)	18(12.0)	37(24.7)	71(47.3)	16(10.7)	150(100.0)

* 안방+전용욕실+드레스룸+창고(1사례) 포함

그러나 다용도실을 별도로 계획한 경우와 다용도실을 전혀 계획하지 않은 경우는 21-25평형에서 그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편복도식 아파트로 후면발코니를 계획할 수 없었기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였다. 그리고 후면발코니 이외의 보조주방을 별도로 계획하여 다용도실이 확장된 사례는 1996-2000년 아파트 31-35평형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엌보조공간으로써 다용도실에 대한 계획은 일차적으로 평면의 접근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편복도식인 경우는 후면발코니를 계획할 수 없어 별도의 다용도실을 계획하거나 아예 계획하지 않아야 하므로, 다용도실 계획에는 매우 불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코니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에서는 발코니 공간을 확대하는 방

13)전개서, pp.363-367.

향으로 평면이 발전되어왔다는 기존 연구¹⁴⁾의 경향을 다용도실의 후면발코니 이용이라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발코니 계획에 유리한 측면에서 계단식 아파트가 <표 6>에서와 같이 보편화하였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② 발코니 공간

아파트 평면의 분석결과 발코니 수는 평균 3.9칸¹⁵⁾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발코니 칸수보다 많은 발코니를 계획한 아파트 평면은 31-35평형, 1996년 이후, 전면 3베이 평면구조, 계단식인 경우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발코니 계획 칸수와 아파트 접근방식 및 전면 배치 평면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발코니 공간의 칸수

	구 분	N	평균	SD	비고
평형	21-25평형	65	3.80	1.383	F=2.675
	26-30평형	25	3.54	0.952	
	31-35평형	27	4.15	0.782	
	계	157	3.92	1.107	
준공 및 입주 시기	1986년이전	8	3.50	1.414	F=1.814
	1986-1990년	18	3.56	1.042	
	1991-1995년	37	3.70	1.051	
	1996-2000년	71	4.10	1.097	
	2001년 이후	16	4.19	1.223	
	계	150	3.91	1.123	
전면 배치 방식	2 베이	127	3.75	1.046	t=-4.275***
	3 베이	30	4.67	1.061	
	계	157	3.92	1.107	
접근 방식	계단식	136	4.21	0.896	t=20.895***
	편복도식	21	2.10	0.301	
	계	157	3.92	1.107	

***P<0.001

전면발코니 계획¹⁶⁾을 감안하면 2베이 평면구조에서 방과 거실공간의 2칸에 발코니가 계획되었고, 후면에 1.75칸의 발코니가 계획되었다. 3베이인 경우는 안방, 거실, 방의 3칸에 각각 발코니가 계획되었고, 1.67칸의 후면 발코니가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전면 배치공간의 발코니 계획은 공간 확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후면 발코니 역시 다용도실을 제외하면 침실을 중심으로 발코니를 설치하여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최대 이용한 계획 관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발코니 공간은 주어진 평면에서 전용면적을 얼마나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발코니 공간의 활용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칸수의 발코니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전개서, pp.410-419.

15)발코니에 면한 독립공간의 수를 칸수로 하여 계산함.

16)분석 평면 157사례 중 1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평면의 전면배치 공간에 발코니가 계획되었음.

3. 요약 및 결론

이상의 평면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전주시 아파트의 평면적 특성을 다음의 <표 20>과 같이 요약 정리하여 그 변화추이를 나타낼 수 있다.

<표 20> 전주시 아파트 평면의 특성

구 분	아파트 평면 특성 및 추이
평면 전면의 공간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베이 평면구조가 우세하지만 3베이 평면구조 경향 전면공간 방-거실-(방) ⇒ 방-거실-욕실/부역으로 변화조짐 전면의 남향 배치 공간 증가 평면의 전체 형상 사각형에서 요철형으로 변화
공적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DK 공간 L-DK 공간배치의 보편적 경향 L과 DK 공간 연결은 시선과 동선 차단 분리 방식
거실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DK 독립성 DK 외부 노출 거부 및 거실보다 강한 프라이버시 확보 외부에서 진입시 시선 조절(프라이버시 확보)과 내부로 진입시 가장 먼저 개방감을 주는 공간 ⇒ 개방적 공간구성 원리
출입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출입공간인 현관을 통해 실내공간 노출 31-35평형에서 완충공간(발코니, 전실)을 거친 현관 진입
사적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방공간구성 전용욕실, 드레스룸 추가로 부부침실의 기능 강화 안방 중시 경향 지속
보조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용도실 후면발코니의 다용도실 계획 경향 ⇒ 부역보조공간 규범 계단식 아파트의 후면발코니 유리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베이, 3베이/ 계단식, 편복도식과 발코니 공간 관계 발코니의 전용면적 미포함에 따른 공간 확장의 유용

전주시 건축된 아파트 21-35평형 평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의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서울 및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다룬 기존 연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면 3베이의 평면구성 추이, 거실 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성 원리, 전용욕실 및 드레스룸에 따른 안방계획의 원리, 부역 보조공간으로써의 다용도실 규범, 발코니 공간의 확대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방-거실 중심의 전면 방배치 형식에서 욕실/부역의 공간이 등장하는 새로운 조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소수사례이지만 대기업에서 중소도시 아파트에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은 다소 실험적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L-DK형의 보편적 경향 속에서, L과 DK의 프라이버시 확보차원의 분리, DK의 외부로부터 폐쇄성과 L의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 확보·내부 개방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입공간 현관계획에서 마당과 같은 완충공간을 두는 경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방은 중심성 경향을 단순히 전용욕실, 드레스룸의 공간계획으로 뿐 아니라 부부침실로서의 개념이 보다 강화된 측면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다소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 대도시 아파트의 보편적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대도시에 보편화되지 않은 실험적 평면의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건설의 상당수가 대도시 대형 건설사에 의해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아파트의 보편성과 대도시 아파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실험성을 적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의 평면을 분석 비교하여 정확히 대형 건설사의 영향임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평면분석을 통해 대도시 중심의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의 보편적 경향이 지방도시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아파트 계획의 원리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계획에 그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는 그 시장특성을 지역이라는 요인에 따라 차별화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공동주택 계획이론에 지역성 요인을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1.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2. 김선아·방희조, FGI를 통한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분석:4-Bay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2), 2004
3. 방전훈·오찬옥, 전면2실형과 3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만족도 비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2), 2004
4. 백혜선, 아파트 평면유형에 대한 거주자 선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5. 손광제·이중우, 대구지역 아파트 평면유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8), 1995
6. 신중진·서기영·허지연·김홍룡·김장수, 최근 초고층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8), 2002
7. 이숙영·이연숙,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의 주요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2), 2005
8. 장창우·진정, 실태조사를 이용한 아파트 단위평면의 공간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전주시 분양면적 24평과 32평형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2), 2001
9. 정성현, 중소규모 아파트 평면형에 관한 연구: 부산 해운대 신도시 아파트의 평면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5), 1998
10. 조성희,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주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2), 1994
11. 최은희,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 2003
12. 최임주, 부산 경남지역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타난 주택 판매전력의 연도별 특성에 관한 연구: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일보 분양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3, 2002
13. 최재필·조형규·박인구·박영섭,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분석: 1966-2002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6), 2004

<접수 : 2006. 4. 3>